

광주신세계, 지역업체 '전국 브랜드화' 지원 성과

지역브랜드 발굴·입점 '전국화' 공전제과·육각커피 등 성공 서울·부산·대구 등 진출 주목 "현지법인 역할에 더욱 충실"

지역 현지법인인 광주신세계가 지역 브랜드 발굴·입점을 통해 '전국 브랜드화'를 지원하는 등 지역 업체와의 상생에 앞장 서고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9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유망 지역 업체를 전국에 알리기 위해 다양한 브랜드를 발굴해 백화점에 입점시키고 있다.

지역 상생을 위한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2019년부터 광주신세계 본관 지하 1층에 입점한 '공전제과'와 '소맥베이커리'를 꼽을 수 있다.

'나비파이'와 '공룡알' 등으로 유명한 공전제과는 지난 1973년 문을 연 광주 지역 대표 빵집으로, 2019년 광주신세계에



광주신세계가 다양한 지역 브랜드를 입점시키며 지역 상생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광주신세계 본관 1층에 입점한 공전제과. **광주신세계 제공**

입점한 이후 지금까지 5년째 자리를 지키 있다. '72집 식빵'과 '콩크림빵'으로 유명한

'소맥베이커리' 역시 1980년대 작은 동네 빵집으로 시작해 2대째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근처에 들어선 후 광주를 대표하는 빵집으로 알려 졌다.

이 업체는 광주신세계 입점을 계기로 신세계백화점 타임스퀘어점과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도 들어서며 전국 브랜드로 거듭났다.

광주신세계는 또 함평의 대표 딸기 케이크 맛집인 '키친 205'와 광주 양림동의 '육각커피'를 잇달아 선보이며 지역 브랜드의 전국화에 성공했다.

'키친 205'는 지난 2021년 광주신세계에 입점한 이후 고객들로부터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대표적인 브랜드다. 특히 딸기가 다량 들어간 딸기 케이크는 평일에도 200개가 팔릴 정도로 소비자들로부터 인기가 높다.

코코넛 커피로 유명한 '육각커피' 역시

지난 2021년 입점했으며 고품질의 원두를 사용한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원두만 구입하기 위해 매장을 찾는 고객들도 많다.

광주신세계와 올해로 9년째 협업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골프용품 업체 '스폴 골프'도 상생 모범 사례로 꼽힌다. 지역 업체로 출발한 스폴 골프는 마스크와 골프장갑 등 골프용품을 생산하며 뛰어난 품질 덕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대구점 등에 진출했으며, 전국에서 팝업 스토어를 마련하는 등 꾸준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김영민 광주신세계 식품팀장은 "광주신세계는 고객들에게 맛의 신세계를, 지역 업체들에게는 기회의 신세계를 전해드리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며 "현지법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지역 브랜드를 발굴해 전국화하는데 기여하는 광주신세계가 되겠다"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soyeong.park@jnilbo.com

광주전남중기청, 'AI·빅데이터 활용' 온라인 교육

오는 22일 수출 증기 대상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오는 22일 바이어 발굴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들을 위한 'AI, 글로벌 무역 빅데이터 활용 해외 바이어 발굴 전략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중소기업부 지방중기

청 간 공동 교육의 일환으로 9개 지방청이 참여기업들을 함께 모집하며, 매일 주제를 달리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달에는 'AI, 무역 빅데이터'를 주제로 22일 오후 2시 '줌(zoom)'으로 진행된다.

세부 교육 내용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바이어 발굴 전략 △글로벌 세관 데이터와 플랫폼 활용 해외 시장조사 △

해외 경쟁사 분석 등이다.

온라인으로 선착순 30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온라인 해외 마케팅 활용에 관심 있는 중소기업 임직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상세내용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www.mss.go.kr/site/gwangju)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소영 기자

광주FTA통상진흥센터, 21일 원산지관리시스템 교육

광주상공회의소가 운영 중인 광주 FTA통상진흥센터는 지역 수출·수출협력업체 원산지관리 담당자들에게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이해하고, 원활한 원산지 증명서 작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오는 21일 광주상의 1층 및 지하 2강의실에서 'FTA 원산지증명서 기초 및 FTA KOREA 원산지관리시스템' 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한국무역정보통신 김용욱 원산지관리사와 대한상공회의소 한지민 관세사가 △원산지관리시스템 이해 △기초데이터 이해와 작성 △FTA 관세특례법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실무 및 인증수출자 제도 등을 중심으로 7시간 동안 집중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 수강료는 무료이며, 수료 시 기업

은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에 있어 필요한 '인증수출자 점수 12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광주FTA통상진흥센터는 지역 기업의 수출경쟁력확보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자 FTA 활용 교육은 물론 통·번역 서비스, 전문가 상담,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실시하고 있다.

최권범 기자

호남고속도로 주암휴게소 주유소 영업중단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는 호남고속도로 주암 휴게소(천안방향) 내 주유소 영업을 오는 13일부터 10월10일까지 150일간 중단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영업중단은 주유기 노후시설 개선 및 유류 탱크 교체 공사로 인한 것이다. 주유소 영업중단 기간 중에도 휴게소와 LPG충전소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13일부터 노후시설 개선공사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장기간의 영업중단으로 고객 불편이 발생하게 된 점 양해를 바란다"며 "고속도로 진입 전 충분한 주유를 하거나, 인근 주유소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현대차그룹, '제6회 VH 어워드' 작품 공모전

차세대 미디어 아티스트 선발

현대자동차그룹(이하 현대차그룹)은 9일부터 7월5일까지 '제6회 VH 어워드(VH AWARD)' 미디어 작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VH 어워드는 차세대 미디어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이들의 예술적 도전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공모전이다. 2016년부터 시작된 VH 어워드는 비디오 아트,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모션 그래픽 등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들에게 등용문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한국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공모전을 4회차부터 아시아로 확대해 지금까지 약 20여명의 수상자들을 지원한 바 있다. 공모전에서 선발되는 파이널리스트 5인에게는 작품 제작 지원금 2만 5000달러와 함께 글로벌 아트 앤 테크놀로지 전문 기관인 아이빔(Eyebem) 온라인 레지던시 프로그램(Online Residency Program)을 제공한다.

작품 응모는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응모 방식은 VH 어워드 공식 홈페이지(www.vhaward.com/ko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권범 기자

광주은행, 전산시스템 교체 금융서비스 일시 중단

12일 오전 2시부터 오후 2시까지

광주은행은 고객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 전산시스템으로 교체함에 따라 오는 12일 오전 2시부터 오후 2시까지 12시간 동안 모든 금융서비스를 일시중단한다고 9일 밝혔다.

서비스 일시 중단 기간 동안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한 입출금 및 이체 거래, 인터넷뱅킹·폰뱅킹·스마트뱅킹 등 전자금융 거래, 체크카드·현금카드·직불카드를 이용한 결제 거래 등 전거래가

중단된다.

다만 신용카드를 통한 물품구매 및 고객센터(1588-3388)를 통한 사고접수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김동섭 디지털개발부장은 "서비스 일시 중단 기간 동안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금인출 및 송금 등은 미리 처리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며 "신 전산시스템 구축에 따른 시스템전환 작업으로 고객분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하여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더욱 편리한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재테크 칼럼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 가격은 상승한다'

가상화폐 시장이 최근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가중되고 있다.

홍콩의 비트코인 현물 ETF는 미국에 비해서 약 100분의 1에 불과한 거래액을 기록해서 아직은 중국 거대 자본의 유입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도 지난 2-3월 보여준 속도감 있는 자본유입이 주춤하고 오히려 최근에는 순 유출이 일어남으로써 가상화폐 가격하락에 가속도를 붙여주고

있다.

지난 1월 미국 증시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이래 가상화폐 시장의 방향은 비트코인 ETF로의 자금이 순 유출이나 순 유입이냐에 따라서 정해지고 있는 듯하다. 날마다 순 유출이 많은 날은 하락하고 순 유입이 많은 날은 상승하는 패턴이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속성상 날마다 변하는 가격에 일회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단순하게 보면 가상화폐 투자의 방향성이 더 명료해질 수 있다. 분

명한 것은 앞으로 비트코인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가능성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높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의 공급량은 2100만 개로 한정이 되있는 반면 미국, 홍콩 등에서 현물 ETF가 승인됨으로써 수요는 늘어날 것이고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바다. 이는 기관과 개인들의 비트코인 투자를 예전보다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송호
경제 칼럼니스트

줄 것이고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대중적인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가격인데 아무리 한정된 자산이라고 해도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면 투자의 한계가 올 수도 있다.

마이클 세일러 등 다수의 비트코인 전문가들은 주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과 비교하면서 금의 총액이 약 1경 200조 달러 정도로 비트코인 총액의 10배 이상인데 금과 비교해서 뒤질 것 없고 오히려

금보다 나은 안전자산인 비트코인은 언젠가는 금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측한다. 비트코인을 경시하는 사람들에게는 황당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비관론자들에게 수많은 황당함을 안겨주며 결국 1억 원을 돌파했다. 이 가격을 수년 전 예측했던 사람들이 있었으나 그때 그들은 거의 정상인이 아닌 사람으로 취급받은 적도 있었다고 한다.

가장 단순하고 변하지 않는 시장의 법칙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 그 상품의 가격은 상승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비트코인 투자의 방향이 담겨있다.